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중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메리 크리스마스

십자가 크리스마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시작



크리스마스 메시지⑩ (금요찬양집회)

너희를 위하여

(누가복음 2:11)

살피고 회개하며, 또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아날까! 크리스마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나에게 입한 크리스마스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은총이며 믿음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고후 4:6~7)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크리스마스는 요동치는 우리의 삶에 생명의 활력소이다. (요 1:9~12)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자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사 9:6~7)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아는 날이다. (갈 4:4) 따라서 크리스마스에 관한 모든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요 3:16~17)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일에, 모든 면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고후 8:9) 진실로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와 같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 율법 아래로 보내주셨다.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요 14:16)

크리스마스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일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준다. (요 29:3) 우리 자신의 감추어진 모든 성품까지도 보여준다. 우리의 심령을 드러나게 한다.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만지시고 움직여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도록 권유하며 우리에게 대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2007년을 시작한 지가 었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질 수 없습니다. 매순간 주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딤후 2:11)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말입니다. (고후 12:9)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총의 중심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7일 “크리스마스 선지자”(사 2:1~5)로 시작된 금요찬양집회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매주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가며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요 5:39) 더불어 특별히 제작된 <중헌 찬양곡집·성탄 찬송가>에 담긴 찬양곡으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들으려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라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 10월부터 시작된 매주 월요새벽 기도회의 <마가복음> 강해는 우리의 초점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시키는 은총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 오늘부터 23일(주일)까지 4주간은 대림절(Advent,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매순간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지만 대림절기를 통하여 온 땅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쫓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닌 그리스도께 집중된 ‘십자가 크리스마스’를 더욱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2007년을 결산하고 2008년을 준비하는 12월이 되도록 매순간 옛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벧전 1:13)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앞으로 달려가도록 용기를 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있을 때에 주님의 빛은 우리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 7:14) 700년 후에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이란 동네의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여 준다. (눅 1:26-28, 30-33)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여 들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응답한다. (눅 1:38)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며 찬양을 한다. (눅 1:46-48) 또한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도 보게 된다. (마 2:1,10,11) 참으로 크리스마스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변화 받은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곧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이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지심을 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이, 곧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께 있다. 크리스마스는 어디나 어느 곳이나 있다. (시 139:7)

크리스마스는 진리가 이 세상 안으로 임하신 날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품으신 그 사랑과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눅 2:14) 크리스마스는 항상 기쁘고 즐겁다. 교인들 사이에서는 선물이 오고 간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에는 예수님을 부릴 방이 없었다. (눅 2:7) 항상 크리스마스에 관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한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예수님이 거하시길 그 방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을 다른 곳에서 찾으며 내쫓고 있지 않는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이 더 좋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뜻을 준비를 하자. “주여!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시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WONDERFUL MIRACLE

⁽⁷⁾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and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⁸⁾ In the same region there were some shepherds staying out in the fields an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¹⁹⁾ But Mary treasured all these things, pondering them in her heart. ⁽²⁰⁾ The shepherds went back,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at they had heard and seen, just as had been told them.

(Luke 2:7~20)

Heaven's history is forever. Our minds cannot even fathom that reality. Sometime during its existence, God created this earth and humankind. Humankind made a fatal error, bringing death and destruction into its universe. God intervened and made a way available for all people to be blessed. His salvation plan is a wonderful miracle. On Christmas, all of history, both heaven's and earth's came together. On that special night, God the Son was born on this earth. God the Son left heaven, separated from God the Father and God the Holy Spirit, and came to a place on this poor earth called Bethlehem. Thousands upon thousands of angels sang about this miracle. All of Scripture led to the place of Bethlehem. Mary and Joseph only came from Nazareth, but the ages had waited for them to arrive. Their arrival was paramount. The Prophet Micah had said that they would be there, "But as for you, Bethlehem Ephrathah, too little to be among the clans of Judah, from you One will go forth for Me to be ruler in Israel. His goings forth are from long ago, from the days of eternity." (Mic. 5:2) That wonderful miracle night had long been on heaven's calendar. The angels looked forward to their appointment. The words of the prophets awaited fulfillment. The Baby in Mary's womb would soon light up the night. Christmas is a wonderful miracle.

Do you realize the wonderful miracle of Christ's humble birth? All of heaven anticipated and waited for that special night. When the fullness of time came, Christ entered this world as a baby,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and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v. 7) Christ came down from heaven to a stable. He entered the world from the womb of a virgin. It is this Baby's world, He created it,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and the world did not know Him." (Jn. 1:10) Yet how poorly He arrived. He came down to redeem the world, but the world rejected Him. For a moment consider the contrast of His condescension; from the fragrance of heaven to the smell of a stable, from the worship of angels to the rejection of innkeepers, from the son of saints to the braying of donkeys, from the robe of royalty to the wrappings of rags, from the mansion of heaven to the manger on earth. My dear friends,

He came down to save you and me. Do you see the wonderful miracle?

Do you realize the wonderful miracle of the heavenly host? Gabriel, an angel, visited Zachariah, Mary, and even Joseph to tell them about Christ's coming. One angel came to the shepherds on the Judean hillside, the fields of Bethlehem, with a great message. (vv. 8~12) The angel told the shepherds, "Do not be afraid;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which will be for all the people; for today in the city of David there has been born for you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vv. 10~11) This was the special place where Rachel was entombed, Samuel anointed David to be king, and Ruth gleaned the fields of Boaz. Once the shepherds notified, a multitude of angels came down and sang on this earth,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v. 14) My dear friends, Jesus was born on Christmas night in Bethlehem. This is a miracle night, a night to remember. Do you see the wonderful miracle?

Do you realize the wonderful miracle of God's work in people's hearts? The Roman Empire decreed a tax census that required Joseph and Mary to register in Bethlehem. Mary was full-term pregnant, but just as God moved the emperor to fulfill His will, so too He touched Mary's heart to travel in her condition. After the angels sang, the shepherds hurried to see Baby Jesus and share the message of the angels, "And all who heard it wondered at the things which were told them by the shepherds. But Mary treasured all these things, pondering them in her heart. The shepherds went back,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at they had heard and seen, just as had been told them." (vv. 18~20) The shepherds became evangelists; the Wise men would journey far distance in following His star. My dear friends, Christ's birth can change your heart, and thus change your eternal destination. Do you see the wonderful miracle?

Christ is born! It is the greatest miracle of all on this earth. The miracle will continue and many will come to Jesus, like the Wise men, many will worship Him. Have you become one of the miracles of Christmas? Your miracle time is now, please come to faith in Jesus Christ and know the miracle of His salvation. Amen. ▣

놀라운 기적

⁽⁷⁾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⁸⁾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¹⁹⁾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나라

⁽²⁰⁾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7~20)



김성관 목사

천국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이 땅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은 온 우주에 죽음과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밤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천국을 떠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떨어져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세대는 그들이 도착하기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들의 베들레헴 도착은 모든 세대가 기다려 온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이 놀라운 기적의 밤은 이미 오랫동안 천국의 달력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이 약속의 순간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역시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곧 이 밤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놀라운 기적

그리스도의 비천한 탄생에 감추어진 놀라운 기적이 보이십니까? 천국은 이 특별한 밤을 고대하며 기다려왔습니다. 때가 차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7절)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마구간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 아기의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에 세졌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요 1:10) 그러나 그분은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지셨는지 상고해 보십시오. 향기로운 천국에서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던 분이 여관 주인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성도들의 찬송을 들던 분이 시끄러운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고귀한 왕복을 입던 분이 너털너털한 강보에 싸였습니다. 천국의 왕궁에서 살던 분이 이 땅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천군 천사들이 전한 놀라운 기적

천군 천사들이 행한 놀라운 기적이 보이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와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렸습니다. 한 천사는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8~12절)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10~11절) 베들레헴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라헬이 묻힌 곳이었으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은 곳이었으며, 보아스의 밭에서 룓이 이삭을 줍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허다한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14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밤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밤은 기적의 밤이요, 영원토록 기억될 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보이십니까? 로마 제국이 호적 명령을 내리자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때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시켜 만삭의 몸으로 긴 여행을 감행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을 들은 후 목자들은 급히 달려가 아기 예수와 함께 천사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나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18~20절) 목자들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그의 별을 따라 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계속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목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아와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참여하는 대열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적에 참여할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11. 28.)

영생에 관한 질문

(요한일서 5:11~13)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다. (시 90:10)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복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일 1:1)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존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일 1:2)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오감을 통하여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한 본성은 영원한 생명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음에도 믿지 못하고 썩어질 세상에만 주복하고 있다.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음에도 우상에 빠져있다. "자녀들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일 5:21)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특히 유한한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요 3:16)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 (요 5:24)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 17:3) 이처럼 영생에 관한 대답은 분명하다. 아주 단순하다.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찾는가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일 5:11)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한다.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영원한 삶을 진실로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은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8~9)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이에 비교할 만한 기쁨이 있는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은 영생으로 인해서 진실로 기뻐하고 있는가? 원래 우리는 죄의 사모로 인하여 이미 죽어 소망이 없던

죄인들이었다. (롬 6:23)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일 2:25)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영생을 주셨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가? 은혜의 선물을 외면한 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40)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찾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찾을 수 있다.

언제 영원한 삶은 시작되는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시작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12)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 (요 1:12)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총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롬 5:1) 그런데 악한 사탄은 우리의 노력으로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속삭인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유혹한다. 이 미혹에 속지 말자. 세상의 모든 것은 썩는 것.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너희가 거둔단 것이 썩어질 썩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썩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삶이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벧전 1:23) 언제 영원한 삶은 시작되는가?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삶은 시작된다.

어떻게 영원한 삶을 가진 것을 확인하는가

영생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 5:13)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전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안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 4:12~13)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영원한 삶을 가진 것을 확인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적으로 바뀌었다. (요일 1:7) 영원한 삶이 가능해졌다. (요일 1:3) 이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영원한 삶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시작된다.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영원한 삶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자. 이미 시작된 영생으로의 길을 향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마가복음 강해 ⑥

* 대주 칠요일 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

(1:14-15)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막 1:14) 회개의 세례를 베풀은 세례 요한은 회개의 죄를 지적하였다. 결국 그는 허투에 의해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다. (막 6:14,27,28)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 갇혀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간단 명료했다.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5)

"내가 찾고" 이 말씀은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때(갈 4:4)에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들 수 없다. (막 14:49)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나라이다. (막 1:7-8)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노력을 통하여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임하였지만 세상에 취한 교회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역 중에 계속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막 4:10~12, 9:11, 14:25)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불

평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듯이 말이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분명히 선포하셨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예수님 사역의 초점이었다. 이후에 제자들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다. (막 6:12) 메시야이신 예수님의 정점은 십자가였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발자취는 조롱과 고난으로 가득했다. (막 9:31) 그럼에도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복음 전파 사역은 계속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믿음은 없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회개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무언가 자신의 삶에 이익이 될까 고민만 하고 있지 않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회한한 무덤 같은 믿음을 버리고 어린이이처럼 예수님을 믿자. (막 10:15~16) 인격자가 되려 하지 말고 "나는 매일 죽는다" (고전 15:31)고 고백하며 말기유에 누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자. 그래야만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왔음을 깨달을 수 있다. (마 6:10 : 눅 11:2)

인간의 역사는 죄뿐이다.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죄들을 받아. 보혈의 복음을 전하자. "나의 삶이 복음과 관계를 맺게 하소서.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2008년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노광관 (장로, 담회서기)

2008년 인사일명이 있었던 10월을 지내고 보니 마치 2007년을 끝내고 2008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앞으로 4년이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하루, 한 달, 일 년이 아쉽게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4~25)

복음 안에 굳게 서는 2008년

2008년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더욱 굳게 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엡 3:6) 이제야 저는 바늘구멍보다도 더 작게 십자가 복음에 눈이 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행하는 일들을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볼 때 완전히 바뀌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 고등학교·대학교 동창, 취미·운동 모임 등 세상친구들과의 모임이 등한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영안을 열고 주변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징조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벧후 3:3)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8) 이 말씀은 2008년을 앞둔 우리 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악한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교회가 추진 중에 있는 복음사역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수양관 건립도 갖은 방해 받고 있으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양로원과 남골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골 2:15)

두려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로 이루어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6) 우리 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들을 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믿음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 6:13) 예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자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의 기도로 든든하게 성당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2)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믿음을 실천하는 성숙한 십자가의 중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계 14:12) 그리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고전 14:15) 믿음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의 24시간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확대되어 교사, 찬양대원, 남부제직들과 일반성도들도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합니다.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계 5:8) 매순간 믿음으로 하나되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2008년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 삶의 대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 28:18~20) 오직 믿음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보혈의 중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같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아멘.

새벽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나는 10월 첫날 위임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가장 편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보여 주는 복음서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막 1:1)로 시작되는 마가복음은 분명하고 편이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임을 선언한다.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결하게 복음을 전한다. 요한 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고 하나님의 시작으로 복음을 유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마가복음은 짧고 간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임을 분명히 전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하여 속도감 있게 설명하고 있다. 참 좋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은혜였다.

나는 이런 저런 핑계로 믿음과 세상적인 것이 뒤엉켜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선교를 갔다. 처음 선교훈련을 받을 때는 너무 힘들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경험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나 자신을 부인하려 해도 내 육신과 경험들이 앞섰다. 그러나 계속된 복음적인 말씀과 선교훈련을 통해 자기부인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

고, 이제는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다. 사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종말을 고백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에게는 오직 복음을 향한 온전한 순종만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

이런 나였기에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정말 좋았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부유하게 자란 마가였지만, 그는 오직 그런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나는 마가를 통해서, 나 역시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깨닫게 되었다. 위임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다. 새벽에 열린 눈으로 집을 나서지만 교회에 도착할 즈음이면 아내와 나는 '우리'를 위한 기도 대신 마가복음 1장 35절의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리다. "주님! 저의 세상적인 관심을 어쩌면 줄까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아직도 자기부인에 익숙하고 체면과 보이는 것에 미련을 가진 죄인에게 이 새벽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한홍연(안수집사, 23교구)

수화 칼럼 10 주기도문 6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 우리를 2. 시험에 3. 들게 하지



4. 마옵시고



5. 다만



6. 악에서



7. 구하옵소서



행복한 동행

지난 해에 허리 수술을 하고 거의 다섯 달 동안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다시 몸을 움직이게 되면서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것은 '나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야겠다.'는 마음이었다. 허리에 보조기를 단 채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니 오히려 몸이 점점 좋아졌고, 이제는 보조기를 하지 않고도 잘 걸어다닌다. 교회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기쁘고 감사하다.

이 기쁨의 감사로 나는 성경 쓰기를 시작하였다. 창세기부터 쓰기 시작하여 일 년이 넘었는데 이제 신명기 34장을 다 쓰고 여호수아를 쓰고 있다. 처음에 성경을 쓸 때에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손가락에 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성경을 쓸 때만쯤은 마음이 평온하고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행복하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 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이제 곧 나는 여든이 되고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 그 날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온전히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

김상훈(성도, 예배다부)

말씀을 담대히 전하러

저는 지난 4월부터 중증2부에서 처음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 주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사 41:10) 말씀을 묵상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새롭게 만난 중증2부 친구들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마음이 설렙니다. '이런 친구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느끼게 해 주실까?'를 마음속에 품으며 다시 한 번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낮아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남지혜(교사, 중증2부)

새가족양육부 11월 수료자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기쁨 예수님

♥ 부모님을 따라 중현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24주간의 양육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서 기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생활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김은영)

♥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시고 희망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믿음의 주권자이십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주님의 은사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평온해지고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김병민)

♥ 나의 예수님은 평안과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가족과 성도와 하나님, 예수님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맘 속 깊이 뿌라나옵니다. 또한 제 자신이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사람이 존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느낍니다. (송지현)

♥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뵈웁니다. 믿음생활을 하면서 매주일이 즐겁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화합되어서 평화롭고 즐겁습니다. (김영수)

♥ 토대신앙이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남작친구의 권도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셨고, 저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든든함으로 기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할 때 마다 가장 먼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이미진)

♥ 고등학교 은사자이신 집사님의 권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저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신앙생활을 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 나는 분의 도움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배용오)

♥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회개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통해 기도하고 저의 죄를 회개할 때가 가장 기쁩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성경말씀을 읽으며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구미리)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한 선교!

선교지가 공산권이다 보니 긴장감과 불협 제위로 들쭉거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차로 2시간 가량 떨어진 농촌과 산지로 이동하여 축조 전도를 했다. 한 마을에 도착하여 전도하기 시작했다. 마구 찾아다니는 개를 겨우 달래어 집안으로 들어가 전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몇 집 문을 방문하여 전도하고 나면 온 몸이 땀범벅이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의 모습에 감사의 기쁨을 느꼈다.

경청들의 눈을 피해야 했기에 노방전도는 물론 현지어 전도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여 암기한 언어로만 복음을 전하러 무척 힘들었다. 일반 언어도 부족해 의사 소통이 전혀 안 되어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기도하며 손짓 발짓을 해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여 전하는 중에 한 영혼을 구원하여 얼마나 중요했는지, 오직 주님이 역사하시어만 선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선교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만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박문선(집사, 이면찬원대)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간	팀	팀장
11월 26일(월) ~ 12월 4일(화)	21교구	김재춘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간	팀	팀장
11월 19일(월) ~ 11월 27일(화)	20교구	강만수



♥ 작년 12월 저와 외삼촌의 권도로 중현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학업을 받았지만 그 후 20살 때부터는 다시 회화를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도 언제나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저를 대하여 주신 예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 성도님들과의 교제가 좋습니다. 그리고 중현의 은혜로운 찬양과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김종홍)

♥ 친구의 권도로 중현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놀라우시고 완전하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기쁩니다. 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김은순)

♥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님과 중현교회를 다니시게 되었고, 저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일이면 회회에 나오기 위해 더 부지런해지고 할 시간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서숙희)

♥ 기도를 하고 싶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저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가득하신 저의 아버지 같으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어도 찬송가를 듣고 기도하며 믿음생활을 하니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잊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손영남)

♥ 6개월 동안 은혜 가운데 양육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생활을 할 때에 선생님들께서 잘 해 주시고 예배드리는데 힘이 줄었습니다. 교회에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놀랍습니다. (오민호)

♥ 같이 일하는 곳의 선생님께서 중현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항상 새 중심적이었던 제 삶이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신혜선)

(편집국)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819	박옥숙	19	장년1부	이진규(6)
1820	김금진	19	청년2부	이진규(6)
1821	이현주	22	청년1부	황이희(9)
1822	고근수	9	장년4부	전용혜(9)
1823	박진수	17	장년2부	
1824	윤여향	1	청년1부	이종희(14)
1825	이은진	1	청년1부	박민지(14)
1826	이희주	25	외선부	강호원(15)
1827	김순혜	6	청년2부	김복수(11)
1828	손귀정	12	장년2부	김봉하(16)
1829	송필나	2	대학부	강계경(15)
1830	조진실	19	장년2부	권태선(19)
1831	채진수	6	청년2부	
1832	김정민	6	청년2부	
1833	이유나	18	청년1부	
1834	김민정	19	대학부	이분남(19)
1835	달리	25	외선부	박정혜(9)
1836	김상수	9	장년1부	신현희(10)
1837	심영숙	9	장년1부	최선희(10)
1838	박희동	21	장년1부	윤병식(8)
1839	김도훈	20	외선부	오지혜(20)
1840	최진진	23	소망부	임창순(23)
1841	김영주	19	대학부	백성일(19)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1000

[illegible]